

### 3) 건축구조

순천지역의 가옥의 구조는 주로 목재를 주재료로 한 가구식 구조인 한반도 전역의 구조적 특성과 다를 바 없다. 전통가옥은 기후조건이나 구성재료, 건축생산기술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가사조영에서 민가는 상류주택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나 조영기법상 열등한 조건에 처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 보편화된 가구방식에 따라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서민 스스로 해결했다.

이 지역에서 보편화된 건축구조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반적으로 기단은 바닥의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선을 따라 지표에서 되도록 높게 정지한다. 그러나 연중 강우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지역이면서도 기단을 낮게 쌓는 경우가 많았다. 평지가 아닌 경사지로서 뒤쪽이 더 높은 대지의 경우는 기단의 높이를 뒤쪽에 맞춤으로써, 정면의 기단은 막돌 허튼층으로 그 위를 흙으로 덮어서 상당히 높게 쌓고 측면은 경사에 따라서 적절히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류주택에서는 잘 다듬은 장대석 등으로 기단을 축조하기도 했지만, 그외는 최근에 시멘트 몰탈로 거친 표면을 마감하여 개조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쌓은 기단 위에 기둥 밑뿌리를 받치기 위한 주춧돌도 상류주택에서는 원주 또는 방주 등의 형상에 맞춘 원형 또는 방형의 숙석가공 초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가에서는 큰 막돌의 편평한 표면이 기둥뿌리에 맞게 놓은 덩벙주초가 일반적이었다. 기둥은 중규모의 주택이나 상류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얼굴에 해당하는 앞퇴의 평주에 잘 치목된 굵은 방주나 원주를 높이 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세주택에서는 앞퇴에만 가는 방주등을 세우고 전, 후면에는 원목의 뒤틀린 생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연히 기둥의 높이도 상류가옥 등에서는 2.0m 이상도 있지만 대부분 1.7m 내외로 서남 해안보다 높은 편이나 중부지역이나 남동지역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서까래나 대들보는 상류주택의 경우에 각형 부연을 건 겹처마에 정교하게 치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원목 생김새대로 사용하고 부연 없이 서까래만 건 훑처마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둥, 보, 처마도리 등을 함께 결구하는 고급 영조법식의 주두나 공포를 짠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중규모 주택이나 상류주택의 경우 처마도리에 장여를 받쳐서 장여 뿔목으로 주두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보와 결구시키기도 했으나, 처마도리에 장여를 받치지 않고 초각 없는 보뿔목을 결구하는 민도리집이 일반적이었다.

벽체는 기둥의 상하로 인방을 걸고 문얼굴을 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외를 엮어서 진흙을 바르고 회로 마감하는 심벽을 주로 사용했으나, 진흙으로 마감을 끝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시멘트 몰탈이나 벽지로 개조한 것이 많지만, 부엌이나 안채에 부착된 곳간 등의 상부 벽체를 판장벽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창호는 안방이나 작은방 등에는 거의 격자살창호를 달았으며 완자, 아자, 또는 화창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영세한 주택의 경우는 간단한 대나무 살 교창을 달기도 했다.

천장은 방의 경우에 우물천장을 올리지만 안청이나 퇴칸 천장부분, 부엌 그리고 안채에 부착된 곳간 등에는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천장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최근에 안청을 방으로 개조한 주택에서는 우물천장으로 바꾼 예도 있다. 지붕은 거의 우진 각 지붕틀에 벗짚을 이는 초가지붕이 사용되었다. 일부 상류주택이나 부농의 주택에서는 팔작지붕 위에 한식 기와를 잇기한 경우도 있다. 현재 초가지붕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슬레이트나 개량 기와로 개조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통가옥의 본래 모습이 크게 자

취를 감춰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순천문화원, 『순천·승주향토지』, 197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층평지』 남도문화연구자료총서1, 1988.  
승주문화원, 『승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4.  
전남대학교 박물관, 『쭈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VI)』, 1989.  
전남대학교 박물관, 『쭈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VII)』, 1990.  
승주군, 『탁안민속마을』, 197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상, 1985.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95.  
박언곤, 『한국건축사강좌』, 문운당, 1994.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5.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1981.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IV, 고려대 출판부, 1971.  
서치상, 『순천시의 문화유적-고건축편』, 순천대 박물관, 199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6.  
이영문, 『전남동부지역의 고고학적 특성』, 『남도문화연구』 3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